

## 60m<sup>2</sup>, 85m<sup>2</sup> 평면의 실크기 및 치수에 관한 연구\*

김민경(경희대학교 박사과정) · 윤재신(이화여자대학교 교수)

아파트평면의 실 크기와 치수는 평면계획에 있어 특정 가치를 가지고 있다. 이러한 특성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, 이는 시간의 흐름, 기술의 발전, 정책의 영향, 거주자에 대한 배려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. 하지만, 변화는 급격히 일어나지 않으며 일정 특성을 유지하며 전형성을 가진 몇 개의 형식으로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다. 이러한 평면의 획일화와 고착화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, 평면이 생활양식을 수용하여 계획된다는 점에서 보면 전형적 특성은 거주자에게 가장 호응을 얻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.

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평면계획에서 실 크기와 치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형적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 가까운 미래에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거주자는 현재보다 더 높은 주거수준을 요구할 것이며, 이에 따라 현재의 일반적인 계획경향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으로 하향전이 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면적인 전용면적 60m<sup>2</sup>(25평형)와 85m<sup>2</sup>(32평형)를 대상으로 하여, 아파트백과(세진기획, 2006)에 수록된 평면을 통해 각 실의 치수에 대한 전형성을 파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.

전형적 평면의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조사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, 대표적 평면 전형이 85m<sup>2</sup>(32평형)에서는 전면 3베이 홀형 평면이었으며, 60m<sup>2</sup>(25평형)에서는 전면 2베이 복도형으로 조사되었다. 그러나 전면 폭의 확대에서 오는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으로 인하여 60m<sup>2</sup>(25평형)에서도 전면 2베이로부터 전면 3베이로의 진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, 60m<sup>2</sup>(25평형)에서도 전면 3베이 홀형이 대표적 평면 전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.

한국 아파트는 규모에 따른 평형별로 실 배치가 전형화 된 몇 개의 특정한 평면 형식들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반하여, 각 아파트마다 실 치수가 서로 조금씩 모두 다른 미묘한 차이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 전형성 파악을 통한 평면안 개발을 위해서는 치수에 대한 통계적 정리가 요구된다. 본 연구의 전용면적 60m<sup>2</sup>(25평형)와 85m<sup>2</sup>(32평형)대 각 실의 평균치, 최대치, 최소치에 대한 통계적 정리는 앞으로 저소득층의 미래 주거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가치가 있다.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두며, 향후 아파트 평면의 치수 계획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.

\*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(과제번호:07도시재생B02)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.